

SPECIAL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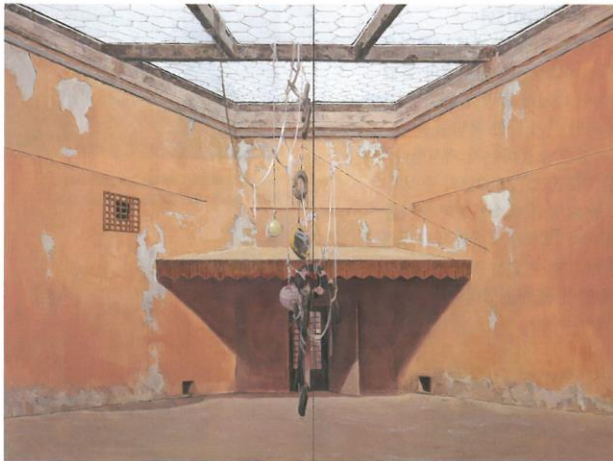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중흥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노충현

Choong-Hyun Roh / b. 1970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갤러리소스(2015), 국제갤러리(2013), 조현화랑(2011),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09), 아트스페이스풀(2006) 등 **Group Exhibitions** <Short Story Long - 장마>(스페이스월링앤달링 2015), <지금 그리고 저편>(누크갤러리 2014), <플레이그라운드>(아르코미술관 2012), <타인의 취향>(원앤제이갤러리 2012), <한국의 그림>(16번지 2011), <최악의 시대>(대안공간루프 2010) 등 **Residencies** 몽인아트스페이스(2010) **Address** blog.naver.com/rhorin



왼쪽 · <연극이 끝난 후> 캔버스에 유채 194×260cm 2015
오른쪽 · <Untitled> 캔버스에 유채 53×53cm 2015

비어 있는 동물원 노충현은 공간을 그린다. 넓은 의미에서 풍경화라고 부를 수 있을 그의 화면 속 공간들은 살롱경하고 스산하다. 대개 그가 그리는 소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공간이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잠시 멈춘 상태의 공간이다. 동물들이 사라진 동물원, 인적이 드문 밤거리, 놀이가 끝난 공원은 본래의 활기와 대비되면서 더욱 극적으로 적조함을 불러일으킨다. 동물원은 가두어진 자연이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동물원이 만들어진 것은 1800년대의 일이다. 대도시라는 완벽하게 인공적인 공간에 동물원이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인간의 공간 속에 자연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이 개입되어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이 보고 싶은 자연을 샘플링하듯 만들어 놓은 장소들인 것이다. 그러한 장소에 종의 생태를 반영하여 만든 지형과 구조물들은 동물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려이다. 노충현은 원숭이 우리에게 열기설기 설치되어 있는 기물들을 화면 속에서 재배치한다. 전시 동선의 가장 마지막에는 그가 이 화면 저 화면에 배치했던 기물들이 커튼콜을 받은 배우들처럼 등장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원숭이들이 들어갈 보금자리는 가구들을 이리저리 바꾸어 배치해도 전혀 방향함을 떨지 못한다. 그가 그려내는 이 풍경들, 단색조로 삭막함을 더한 작품들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타자에 대한 애잔함에서 인간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그 장면들은 분명 인간의 삶에 닿아 있다. 결코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지 못할 동물들의 막막한 공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현실적 조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이운희(미술평론가)